‘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

민선9기 제52대 전춘성 진안군수 취임… 기본사회 비전 선포

진안군이 민선9기 진안군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1일 민선9기 제52대 전춘성 군수 취임식과 함께 열린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9기 출범을 축하했다.

군은 오전 8시 30분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화합의 나무 심기, 기자간담회에 이어 본 행사인 ‘민선 9기 진안형 기본사회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성악 및 진안어린이집 합창단의 순수한 목소리가 어우러진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진행된 선포퍼포먼스에서는 ‘진안형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담은 홍보 영상 시청과 함께, 진안군수를 비롯한 각계각층 주민 6명이 참여한 ‘터치버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기념촬영은 민선 9기 진안군의 비전과 가치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연대하는 감동의 장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대통령 축전(부군수 대독)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과 메시지가 이어져 민선 9기 진안군의 출발에 무게감을 더했다.

진안군이 민선9기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진안’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전춘성 군수는 취임사에서 군정 비전과 함께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기본사회 △든든한 미래를 여는 선진농업 △상생으로 번영하는 민생경제 △활력이 넘치는 건강 치유도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군민과 공감하는 소통행정 등 진안군이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진안형 기본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9기를 진안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포된 비전들이 군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기본사회 무주 완성할 것”

민선9기 황인홍호 무주군정 출발

3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가 1일 제47대 무주군수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열린 황 군수 취임식은 민선 9기 무주 군정의 내실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월례 조회로 대신했다.

황 군수는 “민선 7·8기를 함께 뛰며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기반을 일군 800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민선 9기 기본사회 무주를 완성하고 무주의 대도약을 실현하는 데도 마음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 무주 △현대로템의 조기 안착과 첨단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구축 △돈 되는 무주농업 △사계절 수익형 관광도시 완성 △사통팔달 무주 완성을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황 군수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삶의 기본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본사회 1번지’로 나아갈 것”이라며 “현대로템 투자협약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무주, 지역경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무주를 만드는 전환점인 만큼 추진 속도가 중요하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관련 산업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기반 시설 구축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무주만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또다시 뛸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함께 피운 꽃들이 민선 9기에는 실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

민선9기 최훈식 제48대 장수군수 취임

장수군이 1일 10시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재선에 성공한 최훈식 제48대 장수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민선9기 장수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취임식 당일 최훈식 군수는 오전 9시 논개사당에 들러 분향하고 남산 충혼비에서 참배하며 군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후 취임식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취임식은 최훈식 군수의 가족, 정상득 장수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군민과 함께 축하하는 군민 참여형 행사로 치러졌다.

이번 취임식은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대표해 ‘두드리고’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취임 선서, 취임사, 축하 메시지 전달, 군민 인터뷰 영상 시청, 군정 비전 선포 및 퍼포먼스, 기념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취임식에서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라는 민선9기 군정목표와 장수가 나아가야 될 5대 군정방침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군민과 함께가는 기본사회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사계절 찾고싶은 문화·관광 △군민이 신뢰하는 소통행정을 제시했다.

최훈식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장수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장수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 장수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면서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앞으로 4년 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고 ‘군민을 섬기는 군수’,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장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역설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1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오광석 의원을 선출하고 오순덕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행정복지위원장에 박희용 의원을 선출했고 산업건설위원장에 이해양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도 함께 정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오광석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민생을 살피고 무주군의 번영을 이루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고 군민 피부에 닿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의원들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도록 독려하고 앞장서겠다. 무주군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제10대 무주군의회의 첫걸음에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임시회를 통해 원 구성을 마친 무주군의회는 당분간 교육에 집중하며 의원 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 선출

장수군의회는 1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전반기 장수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에 정상득, 부의장에는 문재표, 행정복지위원장에는 한선미,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일곱명이 모두 참석하여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를 결정했다.

정상득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장수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혁신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독립된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간인 2028년 6월 30일까지이다.

의장단 구성을 마친 장수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으뜸상’ 수상

장수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세와 시·군세 징수율 등 총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장수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다각적인 재원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성과를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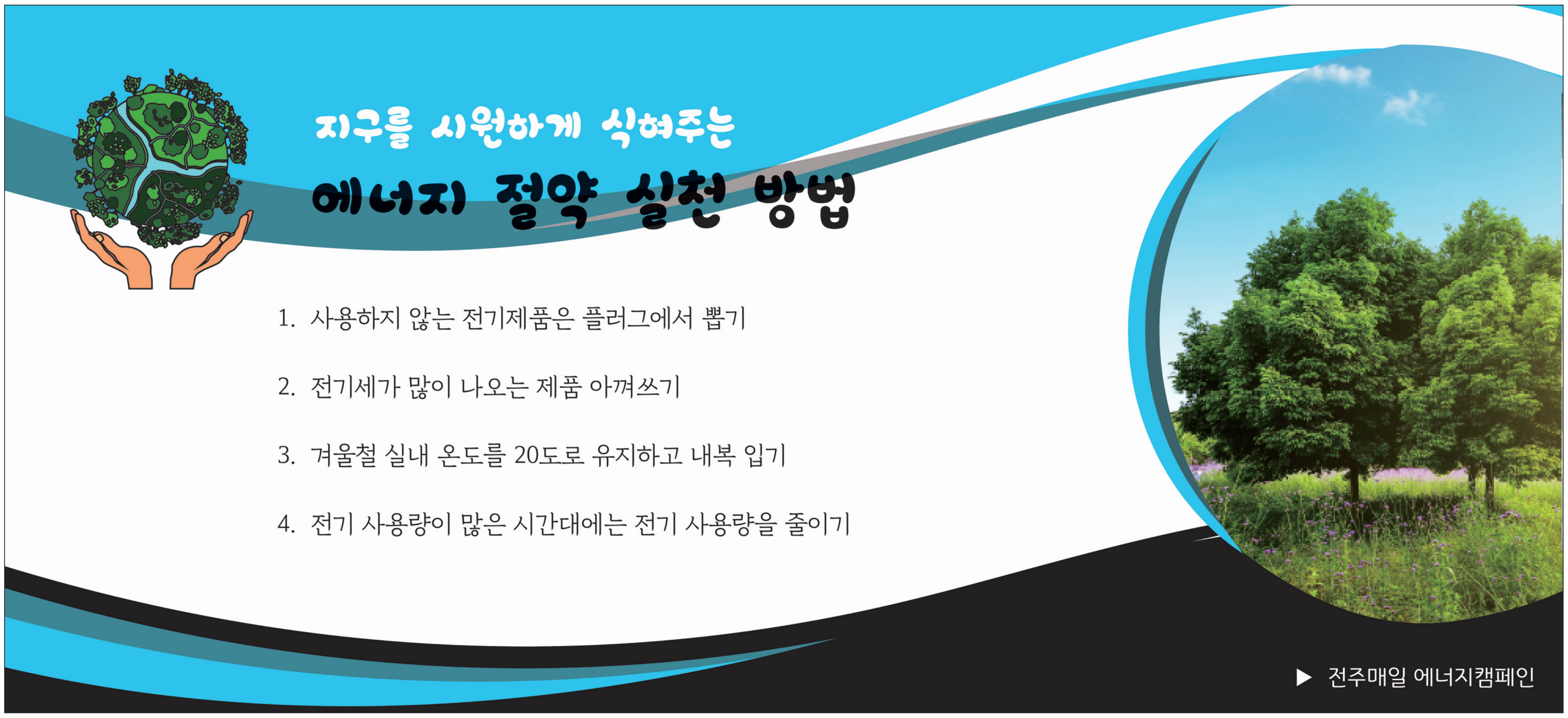
그동안 군은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왔다.

특히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한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쳐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자 중심 행정을 함께 실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확대 추진

진안군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귀농·귀촌인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빈집재생 사업 공급물량을 기존 연간 5동에서 10동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빈집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임대형’과, 올해 처음 도입한 진안군 자체 시범사업으로 본인 소유 빈집의 수선을 지원하는 ‘자가주거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올해 상반기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친 군은 1차 공급 물량인 5가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5가구 역시 오는 9월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